

News Letter



한길 Talk *

한길안과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눈 지키기

눈에 오는 합병증, 당뇨망막병증 당뇨환자라면 절대 안심해선 안 돼요

당뇨환자라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오는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인데요.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실명의 3대 원인 질환으로 꼽히며, 20세 이상 성인에서 발생하는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망막에 분포하고 있는 혈관 장애로 발생,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질환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당뇨로 인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막에 분포하고 있는 혈관에 장애를 일으켜 발생합니다. 망막은 우리 눈의 뒤쪽 벽에 있는 1mm도 안 되는 얇은 막으로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의 초점이 맺히는 부위입니다. 망막에서 초점이 맺힌 빛과 상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므로 망막은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



눈 건강 위협하는 당뇨망막병증,
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망막의 손상은 방치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니다. 망막에는 혈관이 풍부해 크게 4분지의 동맥과 정맥이 혈액을 공급하고 순환시키는데, 당뇨로 인해 이 혈관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약해져 출혈을 일으키거나, 신생혈관을 만들어 내거나, 혈관확장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바로 당뇨망막병증입니다. 이처럼 망막에 출혈이 일어나거나 상처가 나면 초점이 희미해진 상을 뇌로 보내게 되어 시력저하가 발생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물론 당뇨조절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발생합니다.

망막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나뉩니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망막병증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약 9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혈관 생성이 없이 망막 내부에만 여러 가지 혈관의 이상이나 출혈, 부종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 조절로 호전될 수 있으나 방치하면 대부분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됩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혈관들로 인해 쉽게 출혈을 일으키고, 주위에 막들이 자라나와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다음 면에 계속됩니다.

WWW.HANGILEYE.CO.KR

365일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한길안과병원

스마트폰으로
한길안과병원을
만나세요.

한길안과병원은 정부의 까다로운 2번의 검증을 2번 다 통과한 명품 안과전문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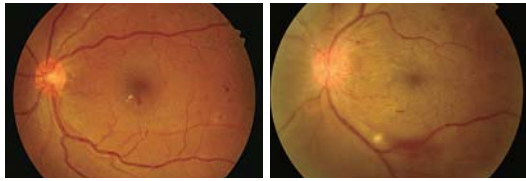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의료기관 인증'이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의료의 질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엄격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혈관이 유리체로 자라 들어가 출혈이 생기면 눈 앞에 떠다니는 그림자가 보이고, 홍채로 자라 들어가면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한 시력저하 또는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 초기에는 혈당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심해지면 레이저 치료를 시행합니다. 레이저 치료(레이저광응고술)는 레이저를 쏘아 손상된 망막을 파괴함으로써 망막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신생혈관을 퇴화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당뇨망막병증을 완전히 치료하거나 시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특별한 이상 없더라도 연 2회 정기 안과 검진 필수

당뇨성 황반부종이나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행하면서 신생혈관으로 인해 망막출혈, 유리체출혈, 견인성 망막박리 등이 발생해 심각한 시력 저하가 초래된 경우는 레이저 치료와 병행해 스테로이드나 항체주사요법(눈 속에 신생 혈관 형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체를 주사)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레이저 치료의 시기를 놓쳤거나 레이저 치료와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출혈 또는 망막박리로 시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시력저하가 발생했다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질환을 제 때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과 전문의의 주기적인 추적관찰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당뇨로 인한 시력장애의 유발 위험이 높다는 것을 숙지하고 최소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과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소 3개월 간격으로 안과를 찾아 합병증 발생 여부를 살피고, 눈에 이상을 느낄 경우 바로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당뇨식이요법,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혈압조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신장질환이 있으면 심한 당뇨망막병증에 이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I 교육 “Patient Safety”



지난 7월4일 우리 병원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서 ‘환자안전’ 분야 연구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헌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QI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Patient Safety’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환자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자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QI 이해도를 높이고 병원 QI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QI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I(Quality Improvement)란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우리 병원은 해마다 연간 QI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QI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범진 병원장,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특강



7월11일 우리 병원 조범진 병원장은 한국산업단지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가 주최하는 특별강좌에 연사로 초청돼 ‘눈이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다’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인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남동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눈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협의회의 특별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범진 병원장은 중장년층이 주의해야 할 눈 질환 및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관리법을 흥미롭게 전해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길안과병원 - 카자흐스탄 Caspian Travel Company, 해외 환자 유치 MOU 체결



7월17일 우리 병원은 카자흐스탄 Caspian Travel Company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안과 진료 부분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과 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카자흐스탄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 성은실버요양원 의료봉사



우리 병원은 8월1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성은실버요양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전문지 ‘청년 의사’와 ‘삼성메디슨’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을 열어주고자 주최한 ‘자원봉사 체험캠프’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날 의료봉사를 통해 캠프에 참가한 의대생들이 유익한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눈이 불편한 노인 분들께 안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한길안과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천대 길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우리 병원은 지난 7월1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8월1일 가천대 길병원과 각각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간의 진료의뢰, 전원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이뤄졌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① 스토리온 렛미인(Let 美人) 촬영

한길안과병원에서 케이블 방송 스토리온(Story on)의 인기 프로그램 ‘렛미인’을 촬영했습니다. 6회 출연자 표가희씨에게 무료로 인공피부의안 시술을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릴 때 망막모세포종이라는 악성종양으로 인해 한쪽 눈을 적출하고 반쪽 얼굴로 살아온 가희씨는 온전한 얼굴을 회복하고 싶어 렛미인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가희 씨의 상태가 일반적인 의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의안 대신 인공피부의안을 착용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가희 씨가 처음 병원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인공피부의안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에피소드가 지난 7월18일 방송되었는데요. 가희 씨가 앞으로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성형안과센터 이상연 교육수련부장이 가희 씨의 상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모습입니다. 가운데 한길안과병원 이상연 교육수련 부장이 서 있네요.



렛미인 6회 출연자 표가희씨와 가희씨에게 인공피부의안 시술을 해 준 한길안과병원 성형안과센터 이상연 교육수련부장이 스튜디오 녹화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네요.



방송에 나온 우리 병원 입구의 모습입니다.

TIP! 인공피부의안이란

인공피부의안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눈을 만들어 피부에 뒹다 붙였다 하며 착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안을 넣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눈꺼풀, 눈썹, 눈동자 등 모든 조직을 밀랍인형 만들 듯이 피부에 분을 떠서 붙이는 시술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얼굴과 눈의 형태에 맞춰서 맞춤 제작되며 가능한 한 착용자의 다른 쪽 눈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② SBS 생활경제

특수 인공수정체 넣어... 노안·백내장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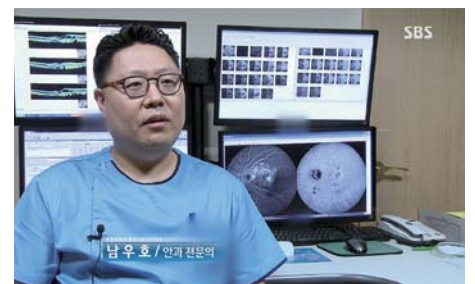
조범진 병원장 출연 / 2013. 8. 19

아이들 ‘속눈썹 찢림’, 방치하면 시력 저하 위험



성형안과센터 김성철 진료과장 출연 / 2013. 8. 13

노화에 따른 안질환 ‘황반변성’, 조기발견이 중요



망막센터 남우호 진료과장 출연 / 2013. 8. 8

갑자기 눈앞이 캄캄... 당뇨망막병증



망막센터 황덕진 진료과장 출연 / 2013. 7. 15

눈과 손은 멀수록 좋다!



평소 무심코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손 닿는 곳 어디든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은 세균 감염의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 ☑ 손으로 눈을 비비지도 말아야 합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안구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 눈병, 독감 등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세균 묻은 손으로 얼굴을 먼저 먼저 감염되기 때문에 손 씻기만 올바르게 해도 세균의 숫자를 줄여 감염성 질환의 6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식사 및 간식 전, 음식물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 ☑ 손은 비누를 사용해 손끝과 손가락 사이 구석구석까지 한 번에 20초 이상 씻는 게 좋습니다.

Tip. 이럴 때 꼭 손을 씻으세요.

		
식사 전	요리하기 전	외출에서 돌아온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렌즈를 끼기 전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한 후
		
쓰레기통을 만진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아기 기저귀 교체 전 후

진료 안내

대표전화 _ 1577-7117
 기타안내 _ 032) 503-3322
 라식센터 _ 032) 529-1001
 평 일 _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 요 일 _ 오전 9시 ~ 오후 3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한길안과병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건강한 눈을 위한 원스톱 토탈케어

- ◎ 5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동
-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력과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20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22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멀리 해외에까지 입문 난 병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_ 연간 외국인 진료건수 : 462건 (2012년)